

광주시, 올해 공무원 2만5천여명 교육훈련 본격 추진

243개 과정 2만 5000 여 명 교육 실시...18일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 시정성과 창출 위한 직무교육 강화...4차 산업혁명 등 정책과제 편성 기초실무능력 강화 위한 예산회계·공공언어·사회복지 분야 신설·보완

광주광역시공무원교육원은 지난 4일 열린 제26기 중견간부리더 과정, 오는 18일 열린 제1기 신규 임용후보자 교육 과정을 시작으로 올해 공무원 교육훈련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교육훈련은 총 243개 과정, 791회, 계획인원 2만4998명을 목표로 운영될 예정이며, 이중 집합교육은 70개 과정, 158회, 4448명, 사이버교육은 173개 과정, 633회, 2만550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을 위한 시정성과 창출

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직무 전문성 향상에 중점을 뒀다.

또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교육 과정과 현장중심의 전문교육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우선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과정과 그린뉴딜, 지방분권, 소득주도성장, 광주형일자리, 적극행정 등 국·시정 정책과제 과정을 개편해 편성했다.

또 신규 임용자들의 기초실무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예산회계, 공

공언어, 건설기술, 사회복지 분야의 교육을 신설하거나 보완했고 특수분야 직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기존의 특별사법경찰, 노동 분야에 더해 정부 공모사업, 면접

관 역량 분야를 신설해 운영한다.

특히,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현장 중심의 현안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역량교육·평가의 과제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과정으로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중된 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을 위해 스트레스 해소 및 치유 과정을 개설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유동적인 교육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화상교육과 사이버교육의 횟수를 대폭 확대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행정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고 광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올해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코로나19와 원격수업으로 초래된 학력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 광주여상, 특허청 공모 선정

올해부터 매년 7천600만원씩 3년간 2억2천800만원 지원

광주여상이 특허청 공모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 학교로 최종 선정돼 3년 동안 2억 2,800만 원을 지원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은 특허청이 발명·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 및 지식재산 소양능력이 있는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사업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했다.

광주여상은 스마트재산경영과를 통한 '창의융합인재 및 직무발명인재' 양성을 통한 맞춤형 진로 GO! GO! 사업계획서로 서면평가, 현장실태조사, 학교장의 발표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학과 단위 유형에 선정돼 올해부터 매년 7,600만 원씩 3

년 동안 2억2,8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광주여상은 발명·지식재산 교과와 정규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지식재산 전문가와 함께하는 아이디어 고도화·지식재산권 출원, 기업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직무발명교육,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는 발명동아리·발명대회 참여 등 다양한 발명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여상 발명·특허 동아리 박은주 지도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미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바로 발명교육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이 '왜(Why?)'라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창의적인 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전남교육청, 겨울방학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공백·학력격차 촘촘하게 해소"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겨울방학을 이용해 코로나19와 원격수업으로 초래된 학력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도내 초·중 226교와 22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 5,32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월)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해 방학 중에도 학습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의 3단계 기초학력안정망을 구축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기문해력, 기초수해력, 영어파닉스, 교과학습향상반, 비학습적요인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촘촘하게 운영해 기초학력의 안정적 정착, 돌봄과 학습을 동시에 책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나주 공산중과 신안 장산중 등 중학교에서도 영어, 수학 기초학습반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1:1 멘토링 등을 운영해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향상 및 학력격차 해소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2개 교육지원청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찾아가는 학습코칭을 실시한다. 이 센터는 학습적·비학습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430여 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및 학습동기강화 프로그램, 1:1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특히, 강진중앙초등학교는 학기 중 운영한 대학생과 함께하는 '1:1 기초학력 멘토링'을 방학중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목포교육청, 순천교육청, 강진교육청에서도 목포대, 순천대 등과 연계해 대학생과 함께하는 학력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빈틈없이 운영하고 있다.

정종혁 유초등교육지원과장은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격차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빈틈없는 지원으로 학습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기초학력 안정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 조현수 씨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합격



'2020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 최고령 합격자인 조현수 씨가 조선대 행정복지학부에 합격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42년생 임오년 말미 80세인 조현수 씨가 대학 신입생의 신분으로 2000년생 학생들과 함께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뉴 노멀(새로운 기준)'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로운 '평생교육'의 모범을 조현수 씨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20년 5월 조현수 씨는 검정고시를 치르기로 마음 먹고 2020년 8월22일 '2020년도 제2회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해 평균 90점에 근접하는 점수를 획득했다. 그 후 12월 조선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의 수시전형에서 합격증을 받았고 조선대 행정복지학부에 입학하기로 결정했다.

35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근무했던 조현수 씨는 퇴직 무렵 강한 의지로 1급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을 획득해 전역 후 미군부대 산하 기업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10여 년 동안 일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학업을 마친 못했지만 레이더 관련 전자정보 지식 획득을 위한 미국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등 공부에 열의가 매우 높았던 조현수 씨는 40여 년 동안의 근로자 생활을 정리하며 학업을 다시 이어갈 것을 결심했다.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했지만 코로나19로 꾸준히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조현수 씨는 인근 스터디카페에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혼자 문제를 풀며 3개월 동안 검정고시를 준비해 왔다. 조현수 씨는 영어와 한국사에서 100점을 획득했고, 평균 90점에 살짝 못 미치는 89점의 높은 점수로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가영 기자